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오향옥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Hyang Ok, Oh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of junior nursing students. **Methods** :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62 junior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students had completed 2semesters of clinical practic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9.3 statistical program,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Clinical performance ability($\beta = .471$, $p < .001$)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beta = .369$, $p < .001$)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was the biggest prediction factor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Conclusion** : In order to improve the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and apply it to improv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elf-concep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간호사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간호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변화하는 다양한 간호요구에 적

응하기 위해서는 간호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1],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간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간호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2]. 간호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호이론 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과 올바른 간호윤리,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 사고력을 겸

비한 근거중심의 임상수행능력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3], 실습교육은 이론에서 배운 지식을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무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실무교육을 의미한다[4]. 특히 임상 실습 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 태도, 간호에 대한 이미지형성 및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5]. 이러한 임상 실무현장에서 습득된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6],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과도 관련성이 있다[1].

임상수행능력은 이론으로 학습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믿음 등을 간호실무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숙련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6], 높은 임상수행능력은 전문직업인으로써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정신적 지각을 높여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반면 임상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장 적응능력의 어려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 무력감, 역할혼돈 등으로 인해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아지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4]. 또한 임상수행능력의 부족은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 중 가장 긴장감을 느끼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7]. 그러므로 학부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임상수행능력을 습득하여 간호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8].

임상실습만족도는 교육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의 하나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 때,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임상실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임상수행능력이 증가되지만[9],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자신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상실습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임상수행능력도 저하된다고 하였다[10]. 그러므로 임상실습체계의 정비, 임상실습 프리셉터의 활성화, 학교와 병원의 지속적인 연계 교육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11].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써 느끼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하며, 간호사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고 스스로 만족할 때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이 촉진된다[7]. 이러한 긍정적 자아개념은 간호의 본질적 가치에 기초한 정신으로 공식적인 학교 교육과정과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통해 발달되며,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간호요구를 수행해 나갈 능력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간호전문직 교육의 필수 요소이다[12]. 또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차후 효율적인 간호업무 및 양질의 간호제공을 위한 기반이 되고 다양한 전문직종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에서 타 분야 전문인들과 조화를 이루는 기반이 되어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5]. 이러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높은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에 의해 향상될 수 있으며[4], 미래에 간호직을 이어가야 할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진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시기에 간호전문직에 대한 확고한 자아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2,4].

최근 간호사의 이직률이 심한 상황에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형성은 간호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이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2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종료한 간호대학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2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종료한 J시 소재 일 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간호대학생 170명이었다. 표본의 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sample size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α) 0.05, 통계적 검정력($1-\beta$) 0.95, 효과크기 0.15, 예측요인의 수 5개로 설정하였을 때, 표본크기는 13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율을 고려하여 17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기명 자가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170명 중 설문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8명을 제외한 162

명(95.2%)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임상수행능력 45개 문항, 임상실습만족도 31개 문항,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27개 문항, 일반적 특성 7개 문항으로 총 1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Lee 등[13]이 개발하고 Choi[14]가 간호대학생에게 알맞은 내용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본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간호과정 11개 문항, 간호기술 11개 문항, 교육·협력관계 8개 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개 문항, 전문직 발전 9개 문항)으로 분류되며, 총 45개 문항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96$ 이었다.

2)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Cho와 Kang[15]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와 Lee[16]가 개발한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를 Lee 등[17]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본 도구는 6개의 하위영역(실습교과 3개 문항, 실습내용 6개 문항, 실습지도 9개 문항, 실습환경 7개 문항, 실습시간 3개 문항, 실습평가 3개 문항)으로 분류되며, 총 31개 문항으로 2개 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93$ 이었다.

3)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Arthur[7]가 개발하고 Sohng

과 Nho[12]가 번역한 것을 Seo[18]가 간호대학생에게 알맞은 내용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본 도구는 3개의 하위영역(전문직 실무 16개 문항, 만족감 7개 문항, 의사소통 4개 문항)으로 분류되며, 총 27개 문항으로 7개 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역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ohng과 Nho[1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5$ 이었고 Seo[18]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88$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종료한 후인 2017년 10월 24일~동년 10월 25일까지 이었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전 해당 반대표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자의 방문에 대해 알리고 강의시간과 중첩되지 않는 시간으로 결정하여 연구자와 연구자로부터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이 해당 반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중도 철회 가능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외로 사용된다는 점과 참여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였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연구 참여 대상자를 보호하였다.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연구자로부터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아무런 표식이 없는 설문 봉투에 넣어 개별적으로 수거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은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135명(83.33%), 남성 27명(16.67%)이었고, 학과 선택동기는 높은 취업률 74명(45.68%)로 가장 높았으며 주변권유 31명(19.14%), 간호사 호감 26명(16.05%), 적성 25명(15.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는 간호사 130명(80.25%), 공무원 24명(14.81%)의 순이었고, 전공만족도는 보통 88명(54.32%), 만족 51명(31.48%)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시 어려운 관계는 수간호사 및 간호사 112명(69.14%), 실습동료 19명(11.73%)의 순이었으며 실습기간 만족도는 보통 87명(53.70%), 만족 60명(37.04%)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의 전체 평균평점은 3.51 ± 0.50 점 이었고, 하위영역별로 가장 높은 영역은 대인관계·의사소통 3.54 ± 0.49 점 이었고, 전문직 발전 3.51 ± 0.4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35	83.33
	Male	27	16.67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ptitude	25	15.43
	High employment rate	74	45.68
	Invitation of others	31	19.14
	Good impression	26	16.05
	academic grade	5	3.09
	Volunteer and go abroad	1	0.62
Career after graduation	Nurse	130	80.25
	Public official	24	14.81
	Graduated school	2	1.23
	The others	6	3.70
Major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4	2.47
	Unsatisfied	10	6.17
	Moderate	88	54.32
	Satisfied	51	31.48
	Very satisfied	9	5.56
Difficult relationship in clinical practice	Head nurse and staff nurse	112	69.14
	Other field workers	15	9.26
	Patient and caregiver	16	9.88
	Practice co-worker	19	11.7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period	Unsatisfied	11	6.79
	Moderate	87	53.70
	Satisfied	60	37.04
	Very satisfied	4	2.47
Total		162	100

점, 교육·협력관계 3.50 ± 0.53점, 간호과정 3.50 ± 0.42점, 간호기술 3.45 ± 0.4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의 전체 평균평점은 3.13 ± 0.80점 이었고, 하위영역별로 가장 높은 영역은 실습지도 3.59 ± 0.66점이었고, 실습평가 3.34 ± 0.60점, 실습시간 3.29 ± 0.58점, 실습내용 3.29 ± 0.46점, 실습환경 3.12 ± 0.4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전체 평균평점은 3.25 ± 0.55점 이었고, 하위영역별로 가장 높은 영역은 만족감 3.35 ± 0.37점 이었고, 전문직 실무 3.29 ± 0.38점, 의사소통 3.18 ± 0.4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여성 군(3.46 ± 0.41)보다 남성 군(3.71 ± 0.38)이 높았다. 학과 선택동기는 봉사 및 해외진출 군보다 학교성적 맞춤 군(F=5.31, p=.002)이 높았고, 전공만족도는 매우불만족이나 불만족 군보다 매우 만족한 군(F=12.85, p<.001)이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시 어려운 관계는 수간호사 및 간호사 군, 환자 및 보호자 군, 실습동료 군보다 타 분야 종사자 군(F=5.06, p=.002)이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습시간

Table 2. Degree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N= 162)

Variables	Categories	M±S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ursing process	3,50±0,42
	Nursing technique	3,45±0,44
	Education, Cooperation	3,50±0,53
	Relationship, Communication	3,54±0,49
	Professional development	3,51±0,49
	Total	3,51±0,5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Practice content	3,29±0,46
	Practice instruction	3,59±0,66
	Practice environment	3,12±0,44
	Practice time	3,29±0,58
	Practice evaluation	3,34±0,60
	Total	3,13±0,80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Professional practice	3,29±0,38
	Satisfaction	3,35±0,37
	Communication	3,18±0,48
	Total	3,25±0,55

만족도는 보통이나 만족한 군보다 매우 만족한 군 ($F=13.04, p<.001$)이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는 여성 군(3.25 ± 0.45)보다 남성 군(3.51 ± 0.50)이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나 불만족 군보다 매우 만족 군($F=10.22, p<.001$)이 높았고, 임상실습 시 어려운 관계는 수간호사 및 간호사 군, 환자 및 보호자 군, 실습동료 군보다 타 분야 종사자 군($F=4.65, p=.004$)이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습기간 만족도는 불만족이나 만족 군보다 매우 만족 군($F=33.05, p<.001$)이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여성 군(3.23 ± 0.35)보다 남성 군(3.59 ± 0.33)이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나 불만족 군보다 매우 만족 군($F=22.69, p<.001$)이 높았고, 실습기간 만족도는 불만족이나 만족 군보다 매우 만족 군($F=32.50, p<.001$)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만족도($r=.53,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수행능력($r=.63, p<.001$), 임상실습만족도($r=.57,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5.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기본 가정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 한계값(tolerance)과 분산 팽창인자(VIF)값과 잔차값(Durbin-Watson)을 산출하였다. 공차 한계값은 .612~.781로 0~1사이 이었고, VIF값은 1.08~1.28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분석 결과 Durbin-Watson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Gender	Female ^a	3.46±0.41	-3.01 (.003)	3.25±0.45	-2.68 (0.008)	3.23±0.35	-4.9 (<.001)
	Male ^b	3.71±0.38	a<b	3.51±0.50	a<b	3.59±0.33	a<b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ptitude	3.70±0.42		3.49±0.30		3.57±0.37	
	High employment rate	3.50±0.32		3.26±0.50		3.21±0.34	
	Invitation of others	3.25±0.51	5.31 (.002)	3.20±0.45	2.1 (0.068)	3.10±0.31	7.98 (<.001)
	Good impression	3.53±0.33	a>b	3.25±0.38		3.38±0.28	
	academic grade ^a	3.89±0.63		3.66±0.77		3.65±0.61	
	Volunteer and go abroad ^b	3.00±0.00		3.00±0.00		3.70±0.00	
Career after graduation	Nurse	3.51±0.40		3.28±0.46		3.30±0.36	
	Public official	3.42±0.50	0.38 (.769)	3.28±0.48	0.73 (0.537)	3.22±0.45	0.83 (.482)
	Graduated school	3.58±0.00		3.56±0.00		3.19±0.00	
	The others	3.51±0.46		3.52±0.44		3.48±0.43	
Major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b	3.79±0.52		2.92±0.93		3.32±0.65	
	Unsatisfied ^{b,c}	3.46±0.35	12.85 (<.001)	2.92±0.60	10.22 (<.001)	2.90±0.42	22.69 (<.001)
	Moderate	3.33±0.39	a>b	3.18±0.38	a>b	3.14±0.25	a>C
	Satisfied	3.70±0.29		3.53±0.38		3.54±0.30	
	Very satisfied ^a	4.12±0.35		3.62±0.53		3.71±0.45	
Difficult relationship in clinical practice	Head nurse and staff nurse ^b	3.47±0.39		3.23±0.46		3.25±0.37	
	Other field workers ^a	3.88±0.34	5.06 (.002)	3.69±0.39	4.65 (0.004)	3.53±0.34	2.99 (.033)
	Patient and caregiver ^b	3.44±0.37	a>b	3.31±0.33	a>b	3.22±0.31	
	Practice co-worker ^b	3.43±0.51		3.30±0.52		3.37±0.4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period	Unsatisfied ^c	3.26±0.59		2.68±0.50		2.79±0.33	
	Moderate ^b	3.37±0.34	13.04 (<.001)	3.14±0.34	33.05 (<.001)	3.19±0.27	32.5 (<.001)
	Satisfied ^b	3.70±0.37	a>b	3.57±0.38	a>b,c	3.48±0.34	a>b,c
	Very satisfied ^a	3.96±0.56		4.11±0.32		4.13±0.1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Variable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r(p)	r(p)	r(p)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1		.63(<.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53(<.001)	1	.57(<.001)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1

검증치가 1.698로 2에 가까워 오차항 간의 체계적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분포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86.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p<.001$), 모형의 설명력은 51%였다. 구체적 변인으로는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은 임상수행능력($\beta=.47, p<.001$), 임상실

Table 5. Effect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82	.18	0	86.52	<.001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42	.05	.47	7.60	<.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9	.05	.36	5.94	<.001

Adjusted $R^2 = .51$, $F = 86.52$, $p < .001$

습만족도($\beta = .36$, $p < .001$)순으로 임상수행능력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가장 큰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51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Park 등[2]의 연구의 3.51과는 같았으며, Kang[10]의 연구의 3.31점, Shin과 Cho[19]의 연구의 3.45점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위영역의 평균평점은 대인관계·의사소통 3.54점, 전문직 발전 3.51점, 교육·협력관계 3.50점, 간호과정 3.50점, 간호기술 3.45점의 순으로 대인관계·의사소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호과정과 간호기술이 가장 낮게 나타나 Kim과 Park[2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Yu[21]의 연구, Shin과 Cho[19]의 연구와 Sung[1]의 연구에서 하위영역 중 전문직 발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으나, 상기의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간호과정과 간호기술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경험을 통해 향상되지만[8], 최근 환자의 권리보호와 간호의 질적 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면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관찰위주와 단순 기술영역으로 제한되어 임상수

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 [22], 학생이 환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실습현장에서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간호과정과 간호기술의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19]. 하지만 Chung[22]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이 좋은 학생이 임상실습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의사소통 능력을 임상실습 교육과정에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간호과정과 간호기술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성별, 학과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시 어려운 관계, 임상실습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기간 만족의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10,2,19]와 일치하였고, Seo[18]의 연구에서 학과 선택동기로 ‘적성에 맞아서’가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고교성적 맞춤’과는 차이가 있었다. Seo[18]의 연구에서 학과 선택동기로 ‘적성에 맞아서’가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고교성적 맞춤’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 학생의 대부분이 학과 선택 시 적성보다는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지원하고 있고, 취업이 어려운 현재의 시대적인 상황이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eo[18], Kang[10]의 연구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임상수행능력이 높았고, 실습 시 어려운 관계는 ‘타 분야 종사자’를 선택한 경우가 임상수행능력이 높았으며 ‘수간호사 및 간호사’를 선택한 경우에서 임상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대상의 실습을 대체하면서 간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며[19], 임상실습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현장지도자를 통하여 다양한 임상실습 경험을 익힐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1]. 또한 간호대학생이 병원 조직문화에서 수간호사나 간호사들 간의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 아랫사람 태우기 등 부정적인 면과 비교육적인 문화를 겪게 되면, 학생들이 간호전문직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임상수행능력이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습학생들이 부정적인 문화를 답습하지 않도록 현장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실습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13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Park, 등[2]의 연구의 3.23점, Kim 등[20]의 연구의 3.30점, Baek 등[8]의 연구의 3.41점보다 낮았지만, Lee 등[17]의 연구의 2.73점보다는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위영역의 평균평점은 실습지도 3.59점, 실습평가 3.34점, 실습시간 3.29점, 실습내용 3.29점, 실습환경 3.12점의 순으로 실습지도와 실습평가 영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실습내용과 실습환경 영역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Kim과 Park[20]의 연구에서 실습지도가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과 유사하였으며, Park과 Han[23]의 연구, Baek 등[8]의 연구에서 실습교과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실습지도자의 실습지도내용이나 지도시간, 집담회 경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Park과 Han[23]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지도자에게 교육받은 시간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실습내용과 실습환경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임상실습 장소와 분위기, 충분한 대상자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Sung[1]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실습 할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산학 협동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임상실습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진의 실습지도와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유지하고, 실습기관과 교수진의 유기적인 산학 협동관계를 통하여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습환경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는 성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시 어려운 관계, 임상실습기간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23,10,18]에서 임상실습만족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Seo[18]의 연구에서 실습 시 어려운 관계는 ‘타 분야 종사자’, 임상실습기간은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서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4]. 또한 타 분야 종사자가 어려운 관계라고 대답한 군이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으며, 수간호사나 간호사가 어려운 관계라고 대답한 군에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으므로, 수간호사나 간호사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산학협력 확대 방안은 학생들의 임상실습 환경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고 임상실습에 대한 정신적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25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Ju[4]의 연구의 3.37점보다 낮았으나 Park 등[24]의 연구의 3.19점, Seo[18]의 연구의 2.70점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하위영역의 평균평점은 만족감 3.35점, 전문직 실무 3.29점, 의사소통 3.18점의 순으로 만족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이 가장 낮게 나타나 Ju[4]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3.42점, 전문직 실무 3.38점, 만족감 3.30점으로 하위영역별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평점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Sohng과 Nho[12]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실무, Dong과 Choi[25], Baek 등[8], Shin과 Cho[19]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각 연구의 결과에서 하위영역별 순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의 교과과정 운영에서 임상실습 전 관련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Park 등[24]의 연구에서도 비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문직과 리더십’ ‘간호윤리’ 등의 교과목 개설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증진이 간호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였으므로[7],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증진방안으로 학교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의사소통론’이나 ‘대인관계 기술론’ 등의 관련교과를 사전 이수하도록 하여 원만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하고, 간호전문직에 대한 만족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교수진과 현장지도자의 지속적인 교육적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학과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시 어려운 관계, 임상실습기간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과 선택동기가 자신의 의지로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학생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나타내는 연구[10,18], 전공만족도, 실습 시 어려운 관계, 임상실습기간 만족도 에서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나타내는 연구[4,2,1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는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간호전문직자아개념은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임상수행능력이 높으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1,19],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경험을 통해 향상된다[8]. 또한 Yu[21]의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Ju[4]의 연구에서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능숙

한 임상수행능력을 바탕으로 한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상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임상실습 전 철저한 사전교육, 현장 지도자의 평가기준 공지, 단순한 실습내용의 개선, 필요한 실습관련 서적의 확보, 실습학생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은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의 순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가장 큰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수행능력($\beta=.47, p<.001$), 임상실습만족도($\beta=.36, p<.001$)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임상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Ju의 연구[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수행능력이 가장 큰 변인이므로 임상수행능력 강화를 통한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가장 크게 영향하는 요인은 임상수행능력임을 확인하였고,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 중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의사소통 능력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기 전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간호과정과 간호기술이 부족하여 임상수행능력이 낮은 결과를 보이므로 실습 전 관련과목의 학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대상자들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모두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직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역할의 확대, 직업적 안정성 보장, 간호의 양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 간호현장에서 남자 간호사의 추진력, 신체적 강인함, 대담함과 역동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 등이 여성간호사와의 상호 보완적 역할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간호직의 특성이 부각되면서 남학생의 간호학 입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6].

본 연구는 대상자가 일 개 대학 간호대학생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J시에 소재한 일 개 대학 간호학부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이었다. 대상자 선정 조건은 2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1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0월 24~동년 10월 25일 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AS 9.3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의 전체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51 ± 0.50 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가장 높은 영역은 대인관계·의사소통으로 3.54 ± 0.49 점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간호기술로 3.45 ± 0.44 점이었다. 임상실습만족도의 전체 평균평점은 3.13 ± 0.80 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가장 높은 영역은 실습지도 3.59 ± 0.66 점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실습환경으로 3.12 ± 0.44 점이었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전체 평균평점은 3.25 ± 0.55 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가장 높은 영역은 만족감 3.35 ± 0.37 점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의사소통으로 3.18 ± 0.48 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성별, 전공만족도, 실습기간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기간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수행능력($r = .63, p < .001$), 임상실습만족도($r = .57, p < .001$)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 중 임상수행능력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하는 가장 큰 변인이었고, 이들 변수들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51%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하는 많은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성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이수 전·후 비교를 통하여 임상실습에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Sung MH.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2;18(1):18-24.
2. Park MS, Lee MH, Gu JA.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litary nursing study*. 2011;29(2):111-123.
3. Park IS, Kim 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3;7(4):105-117.
4. Ju HJ.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and critical thinking on nursing professional self concept.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8):213-224.
5. Yee JA.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10(1):325-334.
 6. Barret C, Myrick F.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8;27:364-371.
 7. Arthur D.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master's thesis]. Australia: University of Newcastle; 1990.
 8. Baek MJ, Kim WJ, Ryu HS. Influencing factors of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3;15(6):3353-3365.
 9. Ji EM, Lee JH.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16(2):1125-1140.
 10. Kang HO.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2010. p.1-55.
 11. Lee MS, Ha YO.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2):8738-8744.
 12. Sohng KY, Nho C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6;26(1):94-106.
 13. Lee WH, Kim JJ, Yu JS, Heo HG, Kim GS, Lim S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asure instrument of pract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Science. Yonsei University. 1990; 13:17-29.
 14. Choi M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5. p.1-48.
 15. Cho GJ, Kang HS. The correlation between self-concept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84; 14(2):63-74.
 16. Lee SE,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1;7(2):333-348.
 17. Lee SH, Kim SY, Kim JA.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 10(2): 219-231.
 18. Seo BM.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dissertation]. Pusan: Inje University; 2015. p.1-107.
 19. Shin KA, Cho BH.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2;19(1):46-56.
 20. Kim SM, Park SY. The effects of attribution disposition,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16(6):3409-3421.
 21. Yu HS.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5;17(2):1129-1144.
 22. Chaung SK.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1;18(1):71-78.
-

23. Park HS, Han JY.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3;20(4): 438-448.
 24. Park NR, Jeon YR, Jang ES, Kim Y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Diagnostics*. 2016;20(1):27-36.
 25. Dong HJ, Choi MS.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6;23(4):373-382.
 26. Son HM, Koh MH, Kim CM, Moon JH, Yi MS. The male nurse's experience of adaptation in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3; 33:17-25.
-